

-(으)려던 참이다

막 ~하려던 참이다

행동하려는 바로 그 순간의 의도를 나타냅니다. 참은 '바로 그때'라는 뜻으로, 이 표현은 거의 항상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려던 참이다	나가다 → 나가려던 참이다
받침으로 끝남	-으려던 참이다	먹다 → 먹으려던 참이다
ㄹ로 끝남	-려던 참이다	만들다 → 만들려던 참이다
현재 순간	-(으)려는 참이다	나가려는 참입니다
자주 함께 쓰는 말	마침, 그렇지 않아도	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
띄어쓰기	참은 명사	나가려던 참이다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어간에는 -려던 참이다, 받침 어간에는 -으려던 참이다를 붙이고, ㄹ 어간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. 만들려던 참이다. 참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의도는 바로 직전의 것이어야 합니다. 다음 주에 할 계획이 아니라 막 하려던 참이어야 합니다: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.

거의 항상 반응으로 쓰이며, 보통 마침이나 그렇지 않아도로 시작합니다. 누군가 전화했을 때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.

-(으)려는 참이다는 현재 순간을 나타내고, -(으)려던 참이다는 방금 지난 간 순간을 돌아봅니다. 과거형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.

■ 예문

- 1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.
- 2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던 참입니다.
- 3 막 나가려던 참에 손님이 오셨다.
- 4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라 같이 가시죠.
- 5 직접 만들려던 참이었는데 잘됐네요.
- 6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에 이름이 불렸다.

■ 비교

-(으)려고 하다

-(으)려고 하다는 시점과 상관없이 의도를 나타내고, 참이다는 그 의도를 바로 이 순간에 고정합니다.

내일 가려고 해요. (갈 생각이다) / 지금 가려던 참이에요. (막 나가려던 참이다)

-기가 무섭게

둘 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. 기가 무섭게는 뒤의 일이 곧 바로 이어졌다는 뜻이고, 참이다는 앞의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
앉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다. (앉자마자) / 앉으려던 참에 전화가 왔다. (막 앉으려는데)

-(으)ㄹ 뻔하다

뻔하다는 다행히 피한 아슬아슬한 일이고, 참이다는 절묘한 타이밍에 끊긴 의도입니다.

넘어질 뻔했어요. (넘어질 뻔했다) / 나가려던 참이었어요. (막 나가려던 참이었다)

■ 주의

✗ 다음 달에 여행 가려던 참이에요.

○ 다음 달에 여행 가려고 해요.

참은 바로 이 순간을 뜻합니다. 다음 달의 계획에는 -(으)려고 하다가 씁니다.

✗ 직접 만들으려던 참이었어요.

○ 직접 만들려던 참이었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으 없이 바로 -려던을 붙입니다.

✗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.

○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.

참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서 띄어 씁니다.